

01차시.

질문과 이야기가 있는 수업이란?

바로 통하는 질문수업

실천학습코칭

01. 왜 질문수업인가?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원하지만 정말 가능할까? 아이들은 해낼 수 있을까? 아직 이러한 수업을 시도해 보시지 않는 선생님들은 궁금해 하십니다.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직접 시도를 하시는 선생님은 아이들의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들에 '정말 놀랍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지식 위주의 암기 수업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로 육성을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수업방법뿐만이 아니라 교수·학습·평가 방법 등 전반적인 부분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므로 학교수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학습의 방법으로는 하브루타를 포함해 거꾸로 학습과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형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업들은 학생들의 질문이나 교사의 질문전략이 없다면 다시 주입식으로 될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교육변화에 대한 기대로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은 피로도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는 다르게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추어 진도를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학교수업변화와 시험을 치지 않는 중학교의 한 학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의 인식변화가 없고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만 지금까지와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우려의 눈길과 함께 부담이 큼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더욱 변화를 원하면서 이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셨을 테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의 인식변화보다 이 모든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교사의 인식변화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보다는 학생이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학습목표와 내용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정작 배우는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 등은 고려되지 않았었습니다. 친절하고 능력이 있는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안을 만들고 자료를 찾아서 많은 것을 준비하여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교사 한 준비한 만큼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업방법을 알고 수업에 도입을 하면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큼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 외로 잘 따라오지 않고 싫증을 잘 내기도 합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잘 따라오지 아이들의 모습들에 지친 선생님들은 원래의 수업방법 즉 본인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의 능력부족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그런 자신의 모습들이 더 힘들고 뭔가를 해본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수업개선을 위한 방법보다는 교사의 인식변화가 더 필요한 시점인 이유는 공부의 방법은 살아가는 방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나의 질문과 생각이 없었던 우리는 매일 매일 나의 질문과 나의 생각 없이 어떤 비판력도 없이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과 생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실수업이 어려운 것이 사회의 인식변화의 부재라는 거대한 틀보다는 교사가 다르게 보거나 넓게 생각을 하거나 연결을 시키는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수업에의 도입과 지속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와 일상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사인 자신이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 수업은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교사인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것이 수업기법과 함께 했을 때 마음과 행동 그리고 신념이 하나로 되어서 만들어지는 수업은 지속될 수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하나의 수업방법이 아닌 하브루타,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수업, 토의토론수업의 다양한 형태의 수업들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 이야기라는 큰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융합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용어를 쓰기보다는 아이들의 질문과 교사의 질문 그리고 이야기들로 풀어나가는 쉬운 구성으로 아우르고자 합니다.

기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업에서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이야기가 있는 수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이 필요함을 느끼게 할까?

이 문제는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이고, 강의를 다니면서 질문을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학습자인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관심과 필요는 재미를 느끼게 하지요. 재미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거구나!! 라고 스스로 그 맛을 느끼게 한다면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재미란 바로 이것이지요.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질문에서 그 답을 얻었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요구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아하!!라는 그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의 수업에는 이 아하!!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이미 만들어진 수업안에 수업목표를 가지고 수업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다가 보니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수업이라기보다 끌려가는 수업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알아가는 맛!! 스스로 찾아가는 수업!!

자신의 질문이 자신의 답을 찾아가게 한다는 간단한 '손맛'의 원리가 학교수업현장에도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은 그 자체가 이미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식과 정리된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기 보다는 그 자체에도 의문부호를 던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지요.

질문은 나의 생각 속에 저장된 지식을 해집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세상을 흔드는 힘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흔들기이지요. 학교수업은 거의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그런 지식을 통해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질문하는 공부의 원리를 통해서 삶의 원리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수업이 교실에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수업의 주도권을 되돌려 줍니다.

둘째,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생들에게 함께 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창의와 인성교육이 교실수업에서 가능해집니다.

매일 매시간 지속되는 수업시간을 단순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발표하면서 또 다르게 정리해가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연습의 장이 될 수가 있을

니다.

도로시 리즈는 질문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1)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 2)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 3)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 4)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 5)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 6)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 7)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이 7가지 원리가 수업에서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질문이 꼭 필요한 기술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는 학창시절 이전인 유아기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경쟁으로 인한 성적위주의 학습은 '함께' 라기보다는 남보다 더 위인 나만의 자리를 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성적위주, 서열위주의 위계를 원한다면 남보다 뛰어남으로 인해 혼자 지위를 누리는 특권의식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겠지요.

세상은 다름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나의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하나의 답을 원하는 지금의 교육방식은 이미 잘못된 것임을 모두가 지적하면서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과거 우리가 배우던 때와는 다르게 교실에서 배우지 않아도 더 쉽게 정보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는 수업은 수업내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지요. 교사가 가르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교사가 한정된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요약된 몇 가지 뿐입니다만 아이들의 질문으로 인한 생각의 확장은 교과서 밖의 이야기나 생활 주변의 적용된 것까지 연결해서 찾을 수가 있어서 더 많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공부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박제된 지식공부에서 살아있는 지식과 지혜의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문이 있는 수업입니다.

02. 교사의 질문

가. 교사의 질문

질문이 있는 수업은 교사의 질문과 학생들의 질문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짝과 혹은 모둠에서 대화나 토론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질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부는 단순하게 주입된 지식이데다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더 확장하거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르침중심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 내어서 배움 중심으로 가기위해서는 교사의 질문이 무척 중요합니다.

나. 교사의 질문전략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의도)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질문종류)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질문방식)

교사인 나에게, 배우는 학생에게? (질문방향)

등이 있습니다.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의 목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습을 위한 질문인지, 복습을 위한 질문인지, 사고확장을 위한 질문인지, 아이들의 삶과 연결된 질문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질문인지, 사물이나 상황을 다르게 보는 질문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답을 요하는 폐쇄적인 질문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열린 질문을 할 상황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폐쇄형질문이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폐쇄형으로 가야하는 질문이고, 아이들의 생각이 주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습과 예습을 위한 질문도 일단 폐쇄형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우선 말로 표현함으로써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폐쇄형질문은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주의를 돌리거나 집중시킬 때 좋은 질문기법입니다.

개방형질문은 확장된 사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과서와 관련된 것이라도 교과서 내용이 한정되어 있으면 교사의 좋은 질문은 교과서 밖의 세상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시대적배경이나 환경적 영향등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방형질문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이들의 삶과 적용되는 예를 찾는 것도 역시 개방형질문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사의 설명보다 아이들의 생각이 마음껏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 아이들의 뇌가 격동을 하는 것이 바로 개방된 질문의 힘일 것입니다.

수업에서는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주의집중을 필요할 때의 폐쇄형질문, 아이들의 사고확장을 위한 개방형질문이 적절한 비율을 이루어져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단원,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생활에서 적용되는 면을 통해 많이 드러나야 하는 단원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사의 질문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질문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대답하기 쉬운 폐쇄형의 질문이 좋습니다. 누구나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던져서 많은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설명을 하고 난 후 간단한 확인을 하는 질문도 여기에 속하겠지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학생을 지목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교사가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대답하기 쉽고 대답하고 싶은 질문, 즉 학생이 생각하는 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학생이 주변에서 겪었던 즉 그 학생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좋겠지요. 이것은 아이들의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중계질문이 있습니다. 학생의 질문에 바로 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교사의 질문입니다. 여러명의 학생이 대답을 하면서 서로 다른 답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되돌려주기입니다.

질문을 한 학생에게 그 질문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실제 아이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바로 해주게 되면 그 학생이 진짜 궁금한 것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교사도 학생의 진짜 질문을 모르게 되고, 학생도 자기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에게 되물어주면 학생의 이야기와 설명을 통해 진짜 질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원하는 답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떤 것인지 교사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교사의 질문방향은 대부분 학생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교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질문의 효과는 매우 큼니다. 학생들에게 향해있는 질문에는 학생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사의 질문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교사의 질문입니다. 교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할 수가 있고, 질문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교실수업 현장일 것입니다. 외부와 내부로 향하는 질문의 균형은 수업상황과 아이들의 상태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03. 교사가 행복한 수업

교사연수 때마다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수업에서 가장 행복하신히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반응을 잘 해 줄 때
아이들이 웃어줄 때
아이들이 잘 참여 해 줄 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쩌면 선생님들이 바라시는 것은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옛 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는듯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달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아이들도 그다지 거창한 것을 원하는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시 선생님들께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좋아할까를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선생님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는 선생님

놀랍게도 아이들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업은 쉽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왜 그동안 어렵게 접근을 하려고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일에 정답은 없겠지만 어쩌면 교실수업에는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고, 잘 말하기’ 이 간단한 명제가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이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 읽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잘 쓸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잘 가르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잘 들어주고 잘 말하기는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가르침입니다.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운다는 것은 정보습득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교육은 이것이 교육의 모든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잘 말하고, 잘 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의 표면적 목적이라도 되살아나야 합니다.

배려가 있는 교실, 질문과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수업이 되려면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교사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믿어야 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교육의 의미가 안에서 밖에서 끄집어 낸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어려운 뒤집기도 혼자 시도해서 해 봅니다. 기어가고, 붙잡고 일어서고, 혼자서 걷기를 시도해봅니다. 이런 때는 부모가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줍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초 작업을 갓난아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시도합니다. 이런 재능을 우리는 믿어야 합

니다.

나비가 고치를 열고 나올 때 일부러 고치를 찢어서 도와주면 나비는 빨리 나올 수는 있지만 혼자 날지 못해 금방 죽어버린다는 일화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학습자인 학생들을 보면 그냥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는데 시키고야 말지요. 그래야 더 빨리 배우고, 더 잘 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배워온 우리세대의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유용한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비가 되어 훨훨 자신들의 세계로 날아다니는 모습이야말로 교사들이 원하는 종람이청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비가 되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스스로 해 내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어리고 불안해 보이므로 자꾸 해주려는 시도를 반복합니다. 주는 것에 익숙해진 어른들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은 스스로 시도해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과거의 우리와 비교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비교하는 대상은 과거의 우리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 즉 그 아이 그 자체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과거의 우리와 비교하기 때문에 행동과 사고가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동일하게 두면 기준과 같은 아이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그 아이가 스스로의 기준이 된다면 전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늘 새롭지만 주어지는 대로 배우는 지식은 외우고 잊어버리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삶에서 필요한 것은 습득한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힘이지요.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힘입니다. 혼자서는 지혜가 발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하려면 연결시키고 확장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적용하는 것이지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끊임없이 지혜로 바꾸는 힘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이 능력은 시기와 방법이 각자가 다릅니다. 다르게 보는 힘은 당연한 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한 질문은 똑 같은 답을 할 것 같지만 같은 질문에 전부가 다른 답을 내어 놓습니다. 그렇게 다른 답을 말하는 능력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의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요.

공자의 말에 뜻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이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교육의 위력을 기원전의 공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말하는 수업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 말로 하는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구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배울 수 가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이 가능한지를 알게 되고 수업하면서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정보교환과 지혜의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수업으로 전환이 되겠지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교사인 우리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공자의 말대로 한 모퉁이를 알면 세 모퉁이를 알기위해 즉 확장된 사고와 적용의 영역까지 알아가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

로 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교사의 행복은 아이들에게 이런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도전을 통해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며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함으로써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인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발견해 줄 수 있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자인 선생님들이시죠. 믿음은 교사가 교실에서 행복해지는 시작이자 완성이 아닐까합니다.